

“관람객 친화형 전시…시대문제 공명하는 작품 많죠”

13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3전시실에서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오는 4월 7일 개막하는 비엔날레 전시 작품을 처음 공개하는 해포식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호주 출신 베테랑 미술작가 로버트 리의 회화 작품 '나라를 치유하다' (Healing Country)가 소개됐다. 원주민의 전통적 치료 행위와 풍경을 따라 흐르는 물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그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신작 2점을 포함, 모두 총 5점을 선보인다.

광주비엔날레 이숙경 감독 인터뷰
기후·인류위기·광주정신 담아
광주서 세계미술현장으로
나가는 신작들 의미 깊어
무각사 등 지역 곳곳서 전시



광주비엔날레 이숙경 예술감독

**물처럼
Soft and Weak
부드럽고
like Water
여리게**

전체 비엔날레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고 감상하길 바랍니다. 현대미술이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고 작품 설명 등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려 마음을 여시면 결국 사람은 이야기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이날 일부 공개된 전시는 친환경 소재의 가벽을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전시를 지향하는 주최측의 의지를 반영한 대목이 눈에 띄었다.

“올해 행사는 전시 디자인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지금까지 전시에서는 폐기물들이 많이 나왔죠. 이번에는 썩는 재료를 사용하고 행사 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며 전시장을 구성했습니다. 형식과 내용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환경, 기후 문제, 인류 위기를 다루는 주제와 맞는 전시장 구성이 필수라고 봤고, 벨기에 출신 디자이너를 초빙해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이 감독은 올해 비엔날레 주제인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에 대한 소개도 이어갔다.

“전시 주제는 물과 같은 ‘태도와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물이

스며들며 강한 바위를 녹이고 물길을 바꾸듯 약하고 잔잔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 세고 강한 것들을 이긴다는 개념이죠. 강한 권력을 소수의 약자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만나실 겁니다.”

이번 전시작들은 시대와 공명하며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한다.

“사회문제나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작품도 결국은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전시를 꾸리며 광주와의 연결을 많이 생각했어요. 우크라이나 문제, 히잡을 둘러싼 이란의 인권문제 등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건들 속에서 광주는 희망의 메시지가자,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징표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억압은 반복되고 그곳에 저항이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본전시관 이외에 무각사 등 곳곳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광주를 찾는 이들이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길 바라는 마음에 작가들의 작업과 어울리는 공간을 전시 장소로 택했다.

“무각사에서는 철학적·명상적인 작업들이 배치되고,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러곤에서는 자연 재료를 그대로 활용해 더욱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한국화, 도자기와 역사적 유물이 어울립니다. 한옥을 리모델링한 예술공간 집에서는 부부 이야기를 다룬 40분짜리 영화 한편을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감독은 “한국을 떠난 25년 동안 국제 미술계에서 얻은 것들을 풀어놓고 싶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시민들은 긍지를 느끼고, 타 지역민들은 광주 비엔날레의 역량을 상기하고,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문화적 유산을 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는 판소리 ‘열사가’

광주시립창극단, 26일 무대

창자가 고수의 복장단에 맞춰 다양한 이야기를 소리와 아니리, 너름새로 구현하는 판소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이다.

광주시립창극단은 올해 처음으로 판소리를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무대를 기획했다.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 진행하는 ‘판소리 감상회’가 그것으로 한달에 한 차례씩 모두 8차례 공연을 개최한다. 매달 창극단 단원들과 초청 국악인들이 무대를 꾸미며 국악평론가 윤종강이 해설을 덧붙인다.

오는 26일 오후 3시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창작 판소리 ‘열사가’를 만난다.

‘열사가’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항일운동의 상징적인 영웅 이준과 안중근, 윤봉길 열사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으로 세 열사의 이야기를 하나의 줄거리로 감상할 수 있다.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악장 양은주 명창의 소리와 김규형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의 복장단



양은주

김규형

이 어우러진 무대다.

한편 4월 30일 공연에는 광주시립창극단 상임 단원인 방윤수(소리)와 도경한(고수)이 ‘홍보가’를 무대에 올리며 5월에는 판소리 ‘수궁가’를 김세미(전북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궁가 보유자)와 김규형 감독이 들려준다. 6월 25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 소리꾼 이복순과 고수 김준영이 호흡을 맞춰 ‘홍보가’를 공연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깨어났네, 개굴개굴’ 무등풍류 댄

18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의상이 ‘개굴개굴’은 개구리 울음소리로 봄을 대변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싱그러움 봄을 뜻하는 말로 봄의 절기와 맞춘다.

경칩과 춘분 맞이를 모티브로 한 전통놀이와 전통문화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8일 전통문화관에서 무등풍류 댄을 연다. 주제는 ‘깨어났네, 개굴개굴’.

이번 행사에서는 동화 구연 ‘돌아온 이야기꾼’을 비롯해 해설이 있는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 ‘무·형·담(無·形·談)’이 관객을 찾아온다. 봄의 사랑과 그리움을 주제로 한 크로스오버 공연 ‘배일동×모나드 트리오’도 만날 수 있다.

오후 1시 입장당에서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안명환 필자의 작품 전시와 시연하는 모습을 즐길 수 있다. 해설은 박종오(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가 맡아 전통 붓과 절기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러 어린이들을 위한 구연동화 체험 ‘돌아온 이야기꾼’이 진행된다.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담은 ‘개구리네 한술밥’을 감상한 후 개구리를 만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돌아온 이야기꾼’ 사전접수를 하고 체험을 마



친 어린이들에게는 친환경 굿즈 ‘보리씨앗 심기 키트’를 선물로 준다. 선착순 20명.

문의 670-85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3 예술인파견지원’

참여 기관·예술인 모집

전남문화재단 4월7일까지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은 예술인의 직무영역 개발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23 전남 예술인파견지원’에 참여할 10개 기관과 예술인 50명(리더예술인 10명, 참여예술인 40명)을 오는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전남 예술인파견지원’은 기관에는 예술을 통해 이슈와 과제 해결방안을, 예술인에게는 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 직업 역량과 예술영역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참여 예술인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월 10일, 30시간 이상의 예술협업 활동을 수행하고, 리더예술인은 월 140만 원(연 840만 원), 참여예술인은 월 120만 원(연 72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사업 신청 자격으로 기관은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업이나 마을 등 단체여야 하며, 예술인은 전남 도내 거주 중으로 예술활동중명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 사업공모를 확인하면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 전문지 ‘시와사람’ 봄호

디카시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장르가 된 것은 오래다. 내로라하는 시인들이 디카시 집을 펴냈고 일반인은 물론 독자들도 또한 디카시집에 진속하다. 자유자재로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다채로운 디카시가 창작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역에서 발간되는 시 전문지 ‘시와사람’ 봄호(2023-107)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 대담으로 ‘다시, 디카시를 말하다’를 주제로 이상욱 시인(창신대 명예교수)과 강경호 시인(문학평론가)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상욱 시인은 디카시 이론을 정립하고 디카시 확산에 힘을 기울여왔다. 이 시인에 따르면 디카시는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SNS를 활용 실시간 소통하는 순간 멀티언어 예술이 된다고 한다.

“디카시에서 사진은 문자와 동일한 기호로서 디카시의 절반의 텍스트가 되고 문자 역시 절반의 텍스트가 돼서 둘이 하나의 완결성을 지닌 텍스트가 된다는 것이죠. 디카시의 사진은 그 자체로 사진예술이 될 수 없는 기호이고 예술 역시 그 자체로는 완결된 시가 아닌 기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주-전남 지역문학의 은사라기 금싸라기 2’ 코너에서는 박태일 시인(경남대 명예교수)이 ‘고흥시인 이장학과 무명의 동백꽃’을



조명했다. 이장학은 광복기에 전남에서 유일한 개인 시집 ‘발자취’를 발행한 시인이다. 수록된 작품은 1934년 여름에서 1947년 사이에 쓴 것으로 나라 잃은 시대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신작시 코너에는 강희안, 김두래, 김선미, 김주대, 박선우, 박수원, 유안진, 정운서 시인 등의 작품이 실렸으며 신작 시조에는 김태경의 작품이 게재됐다.

신작 초대석에는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한 박관서 시인(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의 작품이 소개됐다. ‘새벽 서울行’, ‘홍제전번 건너 속풀이’, ‘미안한 시작법’, ‘봄까치꽃’ 등의 작품과 ‘나의 시론’을 만날 수 있다. 시인은 “시의 언어 이전에 시로써 언어가 함의가 우리 몸이 된다. 하지만 그 몸에는 언어로 된 뚜껑이나 문이 있다”며 “그 문들은 가볍거나 쉽게 깨지는 것들이어서 항상 불안하고 나른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와사람’ 신인상을 수상한 임혜원, 신수진 작품과 심사평도 만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 전통차문화 가치를 되살리다

우리차 깊이알기 연구회, 도심사찰 광제선원 강좌... 회원모집

‘우리차문화의 정신을 만나다.’

보명 스님이 이끄는 우리차 깊이알기 연구회가 회원을 모집한다.

초의차문화연구원(이사장 여연스님)이 초의 선사의 정신을 계승, 우리 전통차문화가 가진 정신적 수양의 가치를 되살려 내기 위해 2022년 창립한 우리차 깊이 알기 연구회는 도심사찰 광제선원(서구 영월로 103번길 8)에서 강좌를 진행한다.

교육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총 10회로 이뤄지며 매월 첫째주 화요일(오후 7시)에는 차문화 기초 이론과 차 명상 기초 수업이, 셋째주 토요일(오후2시)에는 차 품평이 진행된다.

발효차를 중심으로 차를 맛보고 품평하며, 차와 차의 블랜딩, 차와 대용차의 블랜딩, 차와 차농의 만남, 다원순례, 찻집순례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발효차를 알리고, 차기리의 블랜딩, 허브차나 약용차들과의 블랜딩을 통해 다양한 차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지난해 열린 1기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녹차 품평과 명상, 하동 지역 다원순례, 해남 반야다원에서 제다실습 등을 진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